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침묵의 소리

- 농이인을 위한 성극 공연 · 2월18일 (주일) 찬양예배후 -

우리교회 예배다부(부장 홍성주 집사)는 농이인들 초청 성극공연을 준비하고 예배다부의 출발을 힘차게 내딛고 있다. 다음 주일(18일) 찬양예배 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발표될 이번 성극은 서울교회 김옥겸 집사의 연출로 극단

빛모듬(대표 정택진-KBS 수화통역자)이 수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 부활의 사역을 간추려 공연하게 된다.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이번 공연에 우리교회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사단 군목단 및 군종병 내교

-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 -

우리교회의 자매부대인 육군 제3사단 군목들과 군종병 20여명이 오늘 비전2020운동(위원장 이변생 장로)초청으로 우리교회를 방문하여 찬양예배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위로 및 격려 행사를 갖게된다. 우리교회에서는 이들의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돕고 협력하고 있다.

비전2020운동 협력회원 모집

2020년까지 민족의 75%를 그리스도계로 인도할 비전 2020운동본부에서는 군복음화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도울 협력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한 사람의 군인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필요한 경비 3000원을 월 회비로 정하고 한 구좌 회원 또는 그 이상 협력할 회원을 모집중이다. 회원이 되시기를 희망하는 성도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란다.

케직 사경회 열린다

1875년 이래 영국 서북부 지역 콰버리아의 작은 마을 케직에서 시작 된 케직운동은 영국 및 전세계 교회에 영적 활력을 준 전통적인 부흥운동이다.

그간 7회에 걸쳐 많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영적 각성을 경험케한 서울 케직 사경회가 올해는 2월 12일(월)부터 15(목)까지 도곡동 강변교회(363-7815)에서 열린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우리의 종 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8회 케직사경회의 강사는 레이먼드 브라운 목사와 이종운 목사, 김상복 목사, 손봉호 장로이며 이종운 목사님은 2월 13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까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신다.

아기 성장에 관한 특강

새 가정부에서는 육아 교육에 관한 특강을 2월18일(주) 오후 3시20분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교회 606호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강은 이운진 권사를 강사로 하여 옳은 태교 법 임신시의 주의점 육아 요점에 대하여 공부할 예정으로 이번 특강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육아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개역개정판 성경을!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총회가 결의한 개역개정판 성경을 강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성서공회가 1998년도에 출판한 개역개정판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를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현대인이 사용하는 말로 번역한 것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교회는 바라고 있다.

지난주 이모저모



이번주의 말씀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개정판 마 25장 13절)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Mt 25:13)



여호와의 종

이사야 42:1 - 9



이종운 목사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장차 올 고레스 왕을 주목하게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보다 큰 사건 곧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 합니다.

1 오실 메시아를 대망 하라

선지자는 메시아는 누구시며, 오실 목적이 무엇이고 직무를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볼드는 나의 종"(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이라고 했지만 항상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끝까지 순종하시며 참되시고 완전하신 종입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므로 구원사역을 이루시며(요 8:29), 순종으로 모든 순종하는 자의 구원을 이루실 여호와의 종, 특별하신 종이십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1절). 기뻐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라차'라고 읽습니다. 이 말은 모세 율법에서 희생제물에 대하여 만족히 여기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라차'는 하나님께서 만족히 받으시는 제물, 곧 메시아를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1절).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충만히 임하셨습니다(눅 2:40, 3:22).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1절). 3, 4절에도 나오는 정의는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믿는 자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선지자는 이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합니다. 파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것

과 같이 메시아가 오시면 영적인 해방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리스도는 고요하게 임하시고 처신하십니다(2절). 그는 세상 임금처럼 인기를 높혀 세상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며 폭력이나 권력이 아닌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모든 불의한 반대에 대항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모든 핍박을 순순히 당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고요하게 처신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평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시고 세상 소원을 갖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원을 마음에 뜨겁게 가지면 날마다 불안하고 마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때문에 고요하게 임하십니다. 그는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담은 순종하지 않으므로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므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히 5:8-9).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순종은 이적 보다 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행 8:32). 그리스도가 고요하심은 온유하신 까닭입니다. 그는 악인이 괴롭혀도 참고 견디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같지는 못하나 그의 은혜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못쓰게 된 사람까지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십니다(3절). 주님은 귀신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간음하다 잡힌 여인도 버리지 않고 구원하셨습니다. 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나 타락하는 사람도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일 상한 갈대를 꺾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그의 앞에 설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3절의 상한 갈대는 이스라엘을, 꺼져 가는 등불은 이방을 가리키는데 모두가 생명이 쇠잔하여 연약해진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은 자신들을 자각해야 합니다.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3절). 메시아는 진리와 공의로, 다시 말해서 진리 되신 자신과 그의 복음으로 구원하십

니다. 그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되 진리와 공의를 세우시며 하십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4절). 메시아의 생애는 3년의 공생애로 끝나지 않고 제 자들에 의해 지금도 계속 됩니다. 그는 세상에 정의를 세우고, 섬들은 그 교훈을 앙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 곧 천국운동이 일어날 것과 이방들이 복음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3. 여호와의 종을 보낼 여호와는 누구인가

여호와는 창조주이십니다. 땅과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고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의 목적으로 여호와의 종을 부르시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의 역사며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를 새언약으로 주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메시아를 보내시므로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이끌어주시고 흑암에 있는 자를 나오게 하실 분이십니다(7절, 사 61:1, 마 9:30, 11:5, 요 9:7). 하나님은 갈 길을 모르던 영적 소경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적인 해방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영광을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8절). 메시아의 사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많은 백성이 구원받을 때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영광이 우상에게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우상은 없어져야 마땅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한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9절).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구원 운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종,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多神의 나라, 일본

김성호 (대학부)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권에 서 종교적 억압을 받는 것은 물론 아니고, 복음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종족들도 아닌 일본은 흔히 '잘사는 나라, 풍족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알려진 대로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을 한번이라도 방문해 본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진절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살기 편한 나라'라고 평한다. 그러나 내가 방문한 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나라'로 보였다.

그러나 1%도 안되는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나라, 일본에 대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민족을 이토록 잘 살게 하신 걸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일본은 알려진 대로 다신(多神) 국가이다. 십자가와 돌부처가 같은 자리에 놓여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나라, 수백 수천의 신이

공존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뿌리부터 거부되고 있으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수백 수천의 신들에게 매달려 아웅 다웅하고 있었다. 그들이 과연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걸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뜰도록 부럽고 부유한 일본, 시내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교회의 십자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안타까운 나라, 그러나 그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을 자랑하는 일본인들 그들의 그늘진 표정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증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多神의 나라 일본에 복음을 들고 다시 가야 할 이유가 나에게 생겼다.

이것은 지켜주세요.-차량관리부

임훈규 장로 (4교구)

서울교회 차량관리부는 오늘도 성도 여러분을 맞으며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려고 합니다.

입당한지 오래지 않아 아직 주차장 주변의 제반 여건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봉사를 하므로 불편을 느끼실까 걱정하며 모든 차량관리부원들은 송구스러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질서 있는 주차와 불편함을 내색지 않으시고 주차위원들의 인도에 따르심에 감사드리며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날로 늘어가는 차량에 비하여 협소할 수밖에 없는 주차시설도 성도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어 여러분께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차는 지정된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하여 주시며 통로에 주차를 하실 때는 자동차 열쇠를 반드시 주차 위원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하며 지하 주차는 정면 주차를 하여 주시고 층과 층 사이의 구부러진 길에는 절대로 주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는 교회 앞이 몹시 혼잡하므로 일행은 모두 지하에 함께 내려가서 차를 타시고 1층에서는 기다렸다가 타시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와 같이 질서를 잘 지켜주시면 주일이 서울교회를 찾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더욱 기쁘고 감사하시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 만큼 우리의 주차질서도 아름다울 수 있도록 큰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부서는 사역자로 다시 태어나길

정운돈 목사 (대학부)

"서울교회 대학부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고, 다른 크리스찬들과 연결시키며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고, 점차로 자신의 사역을 찾아가도록 도전하고, 삶을 드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학부의 사명선언문(Mission Statement)입니다. 예배(레이투르기아), 친교(코이노니아), 양육(디다케), 섬김(디아코니아), 복음전파(케리그마), 이 다섯 가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교회의 5대 기능이자 목표로서, 2001년도 새로 편집된 총회 교육교재의 5대 기둥이기도 합니다. 대학부는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과 동료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사귀게 되고, 말씀의 양육을 받는 가운데 거룩한 습관들을 형성하여 자라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도록 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중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감에 동참하게 하며,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일생의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전하고 돕는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참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 무익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상관없이 자기의 이름을 위한 야망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 소망과 비전의 젊은이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임상헌 부장 선생님 이하 8명의 교사들은 5대 사역 중 각각의 전문영역에 헌신하여, 대학 청년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도록 같은 소망과 열심을 품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봉사하시는 차량관리부



새로 왔어요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이동권 • 박경자 집사(2교구)



Q: 창원에서 서울로 오셔서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A: 이 집사가 몇 군데 교회를 방문하다가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첫날 감전(?)되어 두 아들(준영, 인영)의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해버렸어요.

Q: 공학박사로서 벤처기업을 설립하셨죠?

A: 25년 동안 연구소 생활을 하다가 자유로운 여건에서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고 싶어 환경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Q: 대학동기로 만나셨다는 데 박 집사님의 전공은 무엇이었나요?

A: 음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소프라노로서 오페라 활동과 대학 출강 및 찬양대 지휘로 봉사해 왔습니다.

Q: 몇 주 동안 교회에서 느낀 점은?

A: 아름답고 훌륭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신 선배 성도님들의 노고가 배어있음을 느끼며 넓은 자리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고 급해지는군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많은데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너무 적어 죄송하던 터에 서울교회로 부름 받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헌신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새 가족 다락방 모임에서 성경공부와 기도교제로 영적 재무장의 기회를 갖게 되어 기대가 큼니다. 늦게 와서 미안하구요.....



탐방-테이프실

복음 증거의 센터

교회 문을 들어서면 왼편으로 안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정갈하고 아담한 서점이(?) 있다. 서울교회를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이다. '개역 개정판 성경'과 찬송가를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당회장인 이종윤 목사님의 39권의 주옥같은 서적들을 구해 볼 수 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요약한 '순례자의 길'을 비롯해 '크리스찬 지도자들', '크리스찬의 신앙 곡선' 등의 신앙 서적들과 성경의 진수인 '로마서 강해'를 위시해 '에베소서 야고보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고린도 전후서 강해' 등의 신약 강해서와 '창세기 강해', '이사야 강해' 등의 구약 강해서와 같은 전문서적들도 만날 수 있다. 목사님의 저서들은 신앙의 초보자도 읽고 쉽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집필되어 있다. 서적들뿐만 아니라 주일 대예배 1년 설교중의 중요한 것을 모아 테이프로 제작해 케이스별로 판매하고 있다. 테이프 실에는 9시부터 6시까지(토: 오전) 정현숙 권사님이 봉사하신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시간에 듣는 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무시로 테이프를 틀어 놓고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정권사님의 당부도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인근의 크리스찬들도 굳이 터미널 앞에 위치한 기독교 백화점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책과 설교 테이프를 구할 수 있는 장소이다.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선물로도 좋은 전도방법이 될 것이다. 책과 테이프를 구입하는 방법 중에는 전화주문도 가능하다고 한다. 국내외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보다 좋은 선물은 없을 듯 싶다. 마침 주일이라 여현진 권사님이(주일 봉사) 우편물에 주소를 적고 게시는 것을 보며 꼭지만 소중한 공간이 복음 증거를 위한 센터가 되기를 조용히 기도 드려본다

문형미 (편집부)



설교 테이프와 서적 판매를 담당하며



이 많은 서적과 테이프가 전도에 활용되기를...

편지 왔어요.

군중병으로 나아갑니다.

신범석 (청년부)

태풍! 이병 신범석 새해 인사드립니다. 4박5일 위로휴가를 다녀온 뒤 새 예배당에 대한 기쁨과 그 동안 기도해왔던 것에 대한 승리감이 생겼습니다. 새 예배당에서 첫 성찬예식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지난 휴가기간 중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님의 한 자녀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복귀하여 군인으로써 책임감이 조금씩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2001년 2월에 일병으로 진급하고 또 군중으로 다시게 됩니다. 일병은 자기소임과 함께 신병을 가르치고 전임의 눈치를 보는 더욱 힘든 때입니다. 이런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군중병으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군 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군 생활 중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생활하며 나타납니다. 거침없이 나오는 약한 말들, 믿는 자들의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모습 등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납니다. 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하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전도하려면 고참에게 당당히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나에게 말씀 전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합니다.

저의 기도는 앞으로의 군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신앙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며 군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 각오하고 군에 왔던 것 지킬 수 있게 기도해주시고, 1월말, 혹한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아무 사고 없도록 기도해주시고 국군장병들 어려울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몸이 아픈 장병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이 아프면 상당히 서럽고 힘듭니다. 꼭 기도해주시고, 새로운 얼굴로 다시 찾아 뵈기를 원하며 그때까지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농어촌 100교회 결연 추가

- 103. 봉신교회 (박명한 목사) 허상한, 최용걸
- 104. 시산교회 (양철민 목사) 김병호, 무지개회
- 105. 진사교회 (김한곤 목사) 이관규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월12일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13일에는 제8회 서울 개척 사경회(강변 교회당)에서 특강을 한다.
- 유태서 집사, 김선미 성도 (8교구) 득남
- 박동원성도 (1교구) 2월 7일 한의원 개원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장화원 집사 박승희 집사 (12교구)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입당감사와 축제위원회10대행사를 위하여
2. 새로 등록하는 가정 정착할 수 있도록
3.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통한 복음의 열매 맺도록
4. 탈북난민 보호 UN청원 1천만명 돌과되도록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한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벽 기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